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6년 5월 조사 -

국내경기는 3개월 만에 개선, 재악화는 일단 피해

~ “중동 서플라이쇼크”로 고비용과 공급제약에 대한 경계 계속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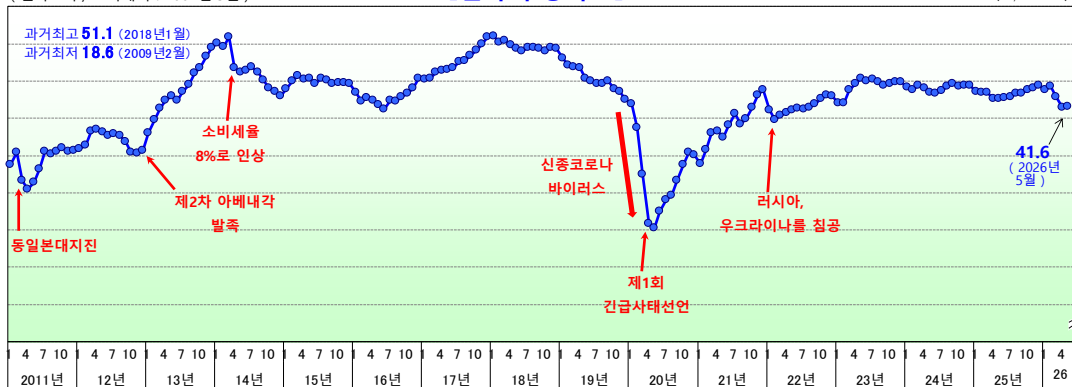
(조사대상 2만 2,749사, 유효회답 1만 521사, 회답율 46.2%,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6년 5월 경기 DI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1.6로,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원유고로 인한 사업가격 상승 및 가격전가 지연을 배경으로 낮은 수준으로 추이 하였으나, AI관련이 호조로 재악화를 일단 피하였다. 향후는 회복 요인을 안고 있으나 개선 템포는 둔하고, 당분간 하방리스크를 동반한 보합권에서 추이 할 것이다.
- 『운수·창고』 등 6개 업계에서 개선, 『건설』 등 4개 업계에서 악화되어 업계간 명암이 갈렸다. 장기연휴가 경기를 지탱한 한편 주식시장은 높은 가격권에서 호조를 유지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개선된 한편, 「소규모기업」은 악화되었다. 지역별로는 4개 지역에서 개선, 5개 지역에서 악화로 체감경기가 둘로 나뉘었다. 자재고와 공급부족이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전자부품관련이 뒷받침하였다.
- [이번달의 토픽스]중동정세로 인하여 원재료비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 그 영향을 받은 기업에서는 가격전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눈에 띄었다.

(월차조사 / 조사개시 : 2002년 5월)

[전국의 경기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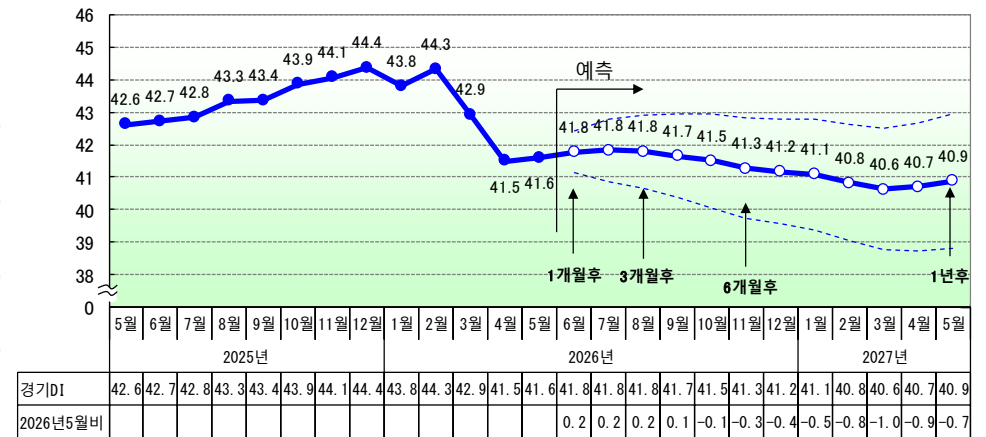
< 2026년 5월의 동향 : 소폭개선 >

2026년 5월 경기 DI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1.6로,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원유고로 인한 사업가격 상승 및 가격전가 지연을 배경으로 낮은 수준으로 추이 하였으나, AI관련이 호조로 재악화를 일단 피하였다.

5월은 업계 및 지역의 체감경기가 둘로 나뉘었다. 닛케이 평균주가가 6만 6천엔대를 기록한 가운데, AI·디지털화, 생력화(省力化) 투자와 관련 수요가 일부 업종을 지탱하였다. 고용 환경의 상승세가 임금상승의 요인이 되어 개인소비를 상승시켰다. 한편 장기금리가 약 29년만에 고수준을 기록하며, 설비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중동정세 영향으로 사업단가 상승에 가격전가가 따라가지 못해, 수익환경에는 하락세 압력이 이어졌다.

< 향후의 전망 : 보합 >

향후의 경기는 임금인상 및 물가고 대책, 성장투자가 가계의 실질구매력과 기업활력을 뒷받침하여 경기의 급속한 악화는 피할 것이다. 다만 내수는 힘이 부족하여 원유고에 따른 사업가격이나 물류비 상승, 장기금리의 고공행진이 설비투자 및 주택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급격한 엔저(円低)진행 및 불안정한 해외정세도 우려 요소이다. 향후는 회복 요인을 안고 있으나 개선 템포는 둔하고, 당분간 하방리스크를 동반한 보합권에서 추이할 것이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